

## 6. 기타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중소기업진흥법

제34조(민속공예산업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속공예산업육성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9. 大邱直轄市基本計劃(業務團地造成)變更案 審査報告書

### 1. 審査過程

- 가. 提出日字 : 1992年 12月 19日
- 나. 提 出 者 : 大邱直轄市長(都市計劃局長)
- 다. 回附日字 : 1992年 12月 19日
- 라. 上程日字 : — 第16回 大邱直轄市議會(定期會)
  - 第3次 建設委員會('92. 12. 21)審査保留
  - 제17回 大邱直轄市議會(臨時會)
    - 第1次 建設委員會('93. 2. 22)審査保留
    - 제18回 大邱直轄市議會(臨時會)
      - 第2次 建設委員會('93. 3. 23)審査保留
      - 제21回 大邱直轄市議會(臨時會)
        - 第1次 建設委員會('93. 6. 15)議決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都市計劃局長 權震鉉)

#### 가. 提案理由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기본 계획 변경

#### 나. 主要骨子

- 위치 : 북구 칠성동, 칠산동 1공단 이적지

## ○ 조성내용

- 입주예상시설 :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원시설등
- 효과
  - 지역중추관리기능 강화
  - 대구경제력제고 지원
  - 대구북부지역개발 촉진

## 3. 檢討報告要旨

(報告者 : 專門委員 姜聲澈)

- 북구 침산동, 고성동 일대 15만여평의 주거용지중 8만여평 정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함에 있어 당초 노선식 형태를 집단식 형태로 변경하여 업무단지의 일반업무 기능인 국·민간기업의 본사를 입지시키고, 사회, 문화, 법률, 상업, 주거, 의료보건 및 공공서비스 기능을 유치하고자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는 안으로서,
- 제3차 국토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등 관련상위계획의 구체화와 대구지역의 미약한 중추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 계획적인 개발이 용이한 지역등 대상지역 산정기준에 의한 입지분석(도시공간구조, 교통체계상 위치등)관련 여건이 충족되고, 업무기능 확보와 도심공장 이전에 따른 도심정비, 대구북부지역의 개발촉진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 본 변경안은 업무단지 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아니고 기존결정안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단지 조성형태를 기존 노선식에서 집단식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업무단지조성 변경안을 처리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質疑 및 答辯

## ○ 質疑·答辯要旨

質 疑	答 辯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노선식 결정주체는	○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위치, 형태등은 전문용역기관과 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개발방식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제일모직, 대한방직과도 협의하였음.

質 疑	答 辯
<p>○ 당초노선식에서 집단식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는</p> <p>○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시 구체적인 내용포함 및 노선식과 집단식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였는데, 객관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접근성과 지하철 개통시 교통효과, 환승선등을 감안하면 변경하려는 위치의 집단식보다 노선식이나 반대편의 집단식 형태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토동남권의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적도 8만평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기본계획 확정후 재정비계획시 집단식 형태를 반대편으로 이전 가능한지와 업무단지 조성의 면적이용시 시허가 사용인가</p>	<p>○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집단식 형태가 낫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임</p> <p>○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노선식은 시설이용시 접근성은 용이하나 교통소통 능력 저하가 우려되며 승인권자인 건설부장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노선식이나 위치 변경은 어려움. 면적은 향후 상세계획 입안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p> <p>○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불가하며 제외면적 이용시 입지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p>

## 5. 討 論

(動議者：金德鎰議員)

- 추후 잔여지에 대해서도 기본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연구 검토하도록 제의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위원전원 재청”

## 6. 審査結果

- 의견제시 원안가결
- 제시의견：토론내용과 같음

-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북구 학정동, 동구 용계동, 을하동, 동구 불로동 및 북구 산격동이 재정비계획안상에는 일부지역만 변경되었거나 누락되어 도시계획입안 지침인 기본계획중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점과, 도시재정비계획안상 현재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촌, 수성, 대명지역중 30m 이상 도로기준 주간선도로변등만이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점 그리고 문화유적 보호를 위해 동구 지묘동 42,400㎡를 최고고도지구로 신설한 부분, 기존주민 210세대 700명과 농경지가 포함된 대구대공원 신설면적 615만평의 타당성 여부등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임.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희망찬 2,000년대를 향한 대구시의 혁신적 변모를 고무 내포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안이 계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진면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사유재산권 제한, 장기미집행, 보상등과 관련한 민원대책 그리고 광익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 반영여부, 환경변화 수용 및 현실성, 합리성 부여여부, 또한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인 도시기본계획 식합여부등을 심도있고 폭넓게 분석한후 종합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4.懇談會 및 現場訪問 實施

- 일 시 : '93. 6. 10(목) 10:00~18:00
- 간담회 : 의견제시 및 집행부 답변청취
- 현장방문(4개소)
  - 수성구범어동 향후병원 폐지 예정지
  - 수성구범어동 삼일자동차학원 남편일대(자연녹지 → 주거지역반영)
  - 대구대공원 신설예정지중 주민제척요구 지역
  - 동구지묘동 최고 고도제한 지구 예정지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 주간선도로 : 52개 노선 172.05km
  - － 광로신설 및 변경 : 9개노선 24.05km
  - － 대로신설 및 변경 : 43개노선 148.00km
- 광 장 : 12개소 85,810㎡
  - － 교차점 교통광장 변경 : 3개소 28,350㎡
  - － 교차점 교통광장 폐지 : 8개소 57,460㎡
- 공 원 : 15개소 20,910,151㎡
  - － 신 설 : 3개소 20,469,400㎡
  - － 변 경 : 9개소 302,476㎡
  - － 폐 지 : 3개소 138,275㎡
- 유통업무 설비 : 2개소 526,100㎡
- 폐기물처리시설(폐지) : 1개소 191,342㎡
- 학 교
  - － 폐지(1개교) : 13,584㎡
  - － 변경(2개교) : 증13,584㎡, 감13,089㎡
  - － 신설(2개교) : 97,136㎡
- 운동장(시민운동장) : 1개소 127,100㎡
- 공용청사 : 1개소 42,060㎡

## 3. 檢討報告(要旨)

(報告者 : 專門委員 姜聲澈)

- 본 제6차 도시재정비 계획안은 지난 '87년 제5차 재정비계획에 이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대구도시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개발정책을 반영 구체화하기 위해 1992년부터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인구 315만을 겨냥하여 토지공간과 수요시설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골격을 형성하려는 도시개발의 장기구상으로서,
- 급변 재정비계획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최대 관건인 재원확보가 급선무로서 계획안상 도로부문에만 소요되는 예상제원만도 엄청난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투자가용 재원 조달방안과 민원대책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